

<우수작> 전염되는 육아공포를 용기와 희망으로 바꾸기 위하여

- SBS <실제상황 토요일! '우리아이가 달라졌어요'>의 미덕과 문제점 -

김지은

서(序)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라는 광고카피처럼 '아이는 부모하기 나름'이란 믿음의 퍼져가고 있다. SBS <우리아이가 달라졌어요>의 영향이다. <우리아이가 달라졌어요>는 떼쓰고, 조르고 소리지르는 '무서운 아이들'이 주인공이다. '애들이 다 그렇지' 라며 애교로 넘기기에는 꺼림칙한 장면들이 화면을 채운다. 이런 그들의 잘못된 습관이나 행동을 육아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고쳐 나가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다. 방송 후 얼마 되지 않아, 포털 사이트에 프로그램명과 출연 아동이 인기 검색어가 될 정도로 시청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물론, 나도 애청자 중 한 명이다. 추석을 맞아 오랜만에 내려간 고향 집에서 이 방송을 봤다. "어디서 이렇게 애가 우냐"며 어머니가 놀라서 나오셨다. TV 소리라는 얘기에 정신 사납게 애들 뺨뺨 우는 프로그램을 본다며 핀잔을 주셨다. 어머니의 핀잔을 듣고 난 후, 나는 의문이 생겼다. 가장 안정적인 선호도를 가진 모델은 미녀, 어린이, 동물(Beauty, Baby, Beast)이다. 3B 원칙이다. 다른 모델과 달리, 어린이를 전면에 내세운 방송은 몇 년 전 방영한 MBC <GOD의 육아일기> 정도였다. 재민이는 천사 같은 웃음으로 시청자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왜 2005년 시청자들은 떼쓰고 욕하는 아이들에게 채널을 고정하는 것일까? 왜 '정신 사나운 프로그램'이 사람들 입에 수없이 오르내리는 것일까?

이 궁금증으로 인해, <우리아이가 달라졌어요>의 인기비결을 찾기 시작했다. 또한 서서히 드러난 문제점과 대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本)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의 미덕

<우리아이가 달라졌어요>의 가장 큰 미덕은 육아를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

라 사회적 의제로 만든 점이다. ‘어떻게 하면 아이를 착하고 바르게 키울까?’ 어느 시대에나 있었던 질문이다. 하지만 어떤 정보를 취사해 우리 아이에게 적절한 훈육을 할 것인가는 ‘가족’이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였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가 여기에 파열구를 냈다.

양육과 교육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말을 어렵지 않게 접한다. 가족과 부모가 짚어진 양육과 교육의 무게를 사회가 나누어 져서 보조해야 한다는 말이다. 가족 형태의 변화와도 맞물린다. 그러나 여전히 ‘건강하고 바른 아이를 키우는 것’은 부모의 몫이었다. 여전히 방송에서 육아는 여성의 몫으로 간주됐다. 육아와 교육의 문제가 아침에 방송하는 주부대상 프로그램에서만 다루어지는 것을 봐도 알 수 있었다.

이 방송은 변화된 사회에서 현명한 육아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공감하고 고민해야 할 문제로 바꾸어 놓았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는 문제의 원인을 어른들에게서 찾는 것이 현명한 육아의 대전제라고 설파한다. 아이들의 잘못된 행동만을 문제시하지 않는다. 관찰을 통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분석하고 해결점을 찾는다. 문제의 원인은 언제나 부모의 현명하지 못한 훈육방식과 잘못된 대처에 있다. 예빈이의 떼쓰기는 불안감이 원인이었다. 일관성 있는 양육태도로 신뢰와 애착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했다. 아빠와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가 지켜야 할 과제들이 제시된다.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추려는 노력은 아이들의 변화를 이끌어낸다. ‘어떻게 고칠 것인가’가 우선이 아니라 ‘왜 우리 아이가 나쁜 습관을 가지게 되었는가’를 먼저 찾아내야 한다는 주장에 설득력을 더하게 한다.

육아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실용적이고 유익한 육아 정보를 제공한다. 아이들과 제대로 놀기 위해서는 연령에 맞는 놀이를 할 것, 매일 한 시간 이상 아이와 놀 것을 권유한다. 비속어를 대체할 단어를 가르쳐 주고, 잘못된 조곤한 말투로 지적하라고 한다. 비디오 요법, 거울 요법, 생각하는 의자, 쇼핑 예고 요법 등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한 다양한 비법을 제시한다.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책을 봐도 어떻게 적용할지 몰라 어려웠던 것을, 아이들의 변화 과정에서 검증된 실효성 있는 육아 정보로 해결해 준다. 시청자들의 큰 호응을

얻는 이유이다.

주말 저녁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웃음이 있다. 황금시간대를 장악해버린 오락 프로그램들은 젊은 스타들의 선정적 춤, 구애작전, 외모나 신체적 특징을 비하하는 인신공격으로 가득하다. 혹은 놀이기구, 다양한 운동 과정에서 출연자들의 망가진 모습을 반복하여 보여 주고 있다. 가족들이 함께 보기에는 민망하다. 그래서 시청자들은 주말 저녁에 가족들과 함께 웃으며 볼 수 있는 방송이 있다면 열심히 사랑해주고 성원해 줄 마음을 더욱 키워 왔다.

<우리아가 달라졌어요>는 가족의 문제로 문혀둔 육아를 사회적 의제로 이끌어 냈다. 실용적인 육아정보와 아이의 입장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과 가족애가 돋보인다. 재미와 감동 그리고 공익성까지 챙겼기 때문에, 주말 저녁에 가족들이 함께 웃을 수 있는 방송이 됐다.

서서히 드러나는 문제점은 제작진의 세심한 배려로 극복해야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방송이 계속되며 서서히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첫째, '아이와 부모의 문제'를 지나치게 극단적인 모습으로 방송한다. 자극적인 내용이 반복된다.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며 엄마에게 '죽여 버릴 거야'라는 말을 하는 아이의 모습이 여과 없이 방송된다. 욕하는 아이의 사례를 너무 자주, 길게 보여준다. 음성처리도 제대로 되지 않아 어떤 욕을 하는 것인지 추측할 수 있도록 방송했다. 전회에 방송되었던 문제 행동을 다시 보여주는 것은 아이들을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소재'로 다룬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아이의 문제행동에 집착하지 말고, 원인을 찾아 수정해 나가는 대안 제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둘째, 아이들이 주인공이지만, 아이들에 대한 배려가 적다. 아이들의 문제 행동과 이를 고쳐나가는 과정만을 강조해 방송하는 것이 문제다. 초반에는 아이를 '울보공주', '떡보대장', '떼쟁이', '욕쟁이 꼬마'로 칭하다가 방송이 끝

날 쬐에 그 아이는 '천사'가 된다. 문제행동을 하는 아동은 작은 '악마'였던 것이다. 방송에 출연한 아이들이 그 방송을 볼 때 어떤 영향을 받을지 걱정된다.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아이들이 문제행동을 모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우리 아이가 따라 배울까 두렵다'는 시청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다. 반드시, 출연하는 아이와 시청하는 아이들에 대한 제작진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셋째, 이기적인 엄마, 무심한 아빠, 아이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부모로 정형화된 이미지를 생산한다. 아이의 나쁜 습관으로 상처받은 부모에게 '어떻게 아이가 저렇게 될 정도로...'라는 차가운 시선은 부모의 자책감을 가중시킨다. "나가서 돈을 버는 이유가 뭐예요?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한 거 아니에요?"라며 생계의 짐을 힘겹게 지닌 부모를 이기적인 사람으로 치부해 버리는 듯한 발언들도 돌아봐야 한다. 물론 따끔한 지적도 필요하다. 하지만, 제작진은 전파를 타는 방송으로 인해 이들의 삶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방송출연을 주저했어요. 저 하나 바보가 되어도, 애들이 좋아진다면...". 한 부모의 인터뷰 내용이다. 부모의 잘못된 훈육을 지적하고 옳은 방법으로 제시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와 진행자의 세심한 배려가 요구된다.

넷째, 몰래카메라의 사용으로 아이와 출연 가정의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 아이의 일상을 관찰하기 위해서 집안 곳곳과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 놀이터에 카메라를 설치한다. 부모의 암묵적 동의로 아이의 일상이 고스란히 공개된다. 영화 '트루먼쇼'와 다른 것은 관찰 대상이 아직 어리다는 것과 '올바른 훈육을 통해 나쁜 습관을 없앤다'는 목적이다. 리얼리티쇼의 특성상, 아이의 변화과정을 꾸밈없이 보여주기 위해 몰래카메라라는 장치를 사용한다. 때론 부부싸움, 아이와의 충돌을 너무 세밀히 보여줘서 불편하기도 하다. 제작진은 편집과정에서 극의 전개에 불필요한 출연자의 사적인 일상은 방송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방송되는 육아정보, 방식이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여겨질 우려가 있

다. 방송에서는 부모의 양육방식의 변화로 아이들이 기적에 가까운 변화를 나타낸다. 시청자들은 당연하게도 방송된 다양한 육아정보를 직접 실험해보려고 한다. 같은 효과를 기대하며 대상과 환경, 상황의 다름은 순간 잊혀질 것이다. 아이가 잘못했을 때 '생각하는 방식 혹은 의자'에 앉히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최후의 방법 중 하나로 신중하게 사용해야 하는 방법이다. 화면을 통해서 편집되어 나오는 것을 보면 아이들이 떼쓰고 울 때마다 적용하는 '특효처방' 처럼 여겨진다. 제작진은 TV라는 매체에 대한 시청자들의 신뢰에 대해 간과해서는 안된다. 방송되는 방식을 시청자가 무조건 따라할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주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혼율 증가, 비혈연가족 등 가족형태의 변화로 인한 다양한 가족의 모습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부모와 함께 살거나 3대가 함께 사는 전통적 가족형태만 출연했다. 비혼부/모, 한부모, 비혈연부모에게서 자라나는 아이는 찾아볼 수 없었다. 방송이 현존하는 다양한 가족형태를 외면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가족 형태 속에서 생기는 육아 문제를 그들의 처지와 환경에 맞게 극복해나가는 모습도 다루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엄마, 아빠만의 역할이 강조되는 것을 넘어 전체 가족 구성원들의 애정과 배려로 자라나는 아이들의 모습이 방송되기를 기대해 본다.

육아 공포의 전파가 아닌, 진정 희망교육 프로젝트가 되기 위해

시청자들은 이 방송을 보면서 '과연 내가 엄마(혹은 아빠)가 될 자격이 있을까?', '나는 지금 좋은 엄마(아빠)인가' 라는 질문을 자신에게 던진다. '지금의 내 생활도 힘든데... 과연 그렇게 많은 노력과 책임이 필요한 육아를 잘 해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한다. 점차 육아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로 전환된다. 방송되는 아이를 위한 어른들의 노력은 잔잔한 감동을 준다. 왜 사람들은 부러움이 아니라 공포를 느끼는 것일까?

방송에서 의도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육아 공포의 원인은 바로 아이를 올바르게 키우는 몫이 개인에게만 맞춰졌기 때문이다. 나쁜 행동을 하는 아이에게 생기는 기적 같은 변화는 '아이는 부모하기 나름'이란 믿음으로 바뀐다. 육아의 가장 큰 책임은 가정이라고 말한다. 결론은 가정교육

과 부모의 역할로 돌아온다. 정부, 기업, 가정이 육아를 책임져야 한다는 육아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만, 방송은 그 것을 담아내지 못한다.

또한, 부모는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연습에 나서게 된다. 방송에서 제시한 훈육법을 따르고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다. 어린아이를 가진 젊은 부모들은 대부분 '불안정한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 엄청난 경쟁을 하며 살고 있다. 고용 불안, 재정 불안, 생명 불안에 시달리며 살아간다.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는 '더 빠르게,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 채원이 엄마는 힘들어도 혼자 가게를 운영했고, 원경이 엄마는 아이와 놀면서 언어발달을 유도하기 위해 그 많은 질문을 했다. 대부분의 아빠들은 집에 들어오면 아이와 놀아줄 시간도 없이 피곤해서 잠들었던 것이다. 아이들의 문제는 부모의 무관심, 무책임함 때문이 아니다. 생활방식과 경제적 변화로 부모가 시간에 쫓겨 살고 있기 때문이다.

방송의 메시지가 현실과 육아 사이에서 갈등을 겪는 많은 시청자들에게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에만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된다. 부모가 즐겁게 육아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사회적 책임과 과제를 제시해야 한다. 내 아이를 위한 가정의 변화 뿐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위한 사회의 변화도 선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점은, MBC <느낌표>를 벤치마킹해도 좋다. 많은 지역에서 뜻있는 교사와 부모들이 실시하는 공동육아의 사례도 좋고, 원경엄마의 말처럼 아이들이 함께 마음껏 놀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해도 좋다. 사회 구성원의 애정과 관심으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도들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아이들이 달라지기 위한 사회의 책임을 등한시한다면,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심리적 고통을 가중시키는 육아공포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결(結)

'사랑은 생활의 결과로 경작되는 것이지 결코 갑자기 획득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신영복 선생님의 말이 떠오른다. 함께 부딪히고 사는 가족의 소중함과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는 진심에서 묻어나는 사랑을 느끼며 웃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에 시청자들의 관심이 더욱 큰 것이다. 나도 역시 이 방송에 거

는 기대가 크다. '오락'이기 때문에 육아문제가 시청자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만큼, 역으로 재미와 흥미를 불러일으킬 소재로 전략할 수도 있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시청자들의 애정과 관심이 더 큰 도약을 만들 것인가, 흥미위주의 오락프로그램으로 전략할 것인가? 시청자들은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을 향한 제작진의 진정성이 방송에 표현되는지 여부로 판단하게 될 것이다. 애청자의 한 명으로, 이 프로그램의 발전적 변화를 기대한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가 주말 저녁 방송을 선도할 수 있기를 바란다.